

금호산업, 대한통운 주식 54만주 매각

금호산업은 투자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한통운 주식 54만7372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481억원 가량에 매각했다고 2월21일 공시했다.

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이 대한통운 지분 9.1% 가운데 3.4%를 금호생명에 매각해 금호생명의 대한통운 지분이 1.46%에서 4.86%로 늘었다고 밝혔다.

금호산업은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통운 주식을 매각했으나 금호 계열사인 금호생명이 인수함으로써 금호아시아나의 대한통운 지분에는 변동이 없게 됐다.

<화학저널 2007/02/22>